"나도 탐정 되어볼까"…광주서 첫 자격증 시험

8월 탐정법 공포 앞두고 시행
응시자 110명중 100명 전현직 경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지난 24일 탐정시험으로 불리는 '민간자격 생활정보 지원탐색사' 검정 시험이 치러졌다. 광주지역에선 처음으로 치러진 이 시험에는 전·현직 경찰관을 비롯해 탐정을 희망하는 110명이 응시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영화 '셜록홈즈'의 주인공처럼 멋지게 등장해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 나도 한번 해볼까."

광주에서 처음으로 탐정(생활정보 탐정사) 자격증 시험이 치러졌다.

25일 대한탐정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광주시 동구 문화전당에서 대한탐정연합회 주최로 열린 자격증 시험에 광주지역 경찰과 탐정 희망자들이 대거 응시했다.

이날 탐정시험에는 총 110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00명이 광주지역 현직 경찰, 나머지 10명은 전직 경찰·군 등의 관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시험에 전·현직 경찰들이 대거 응시한 것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탓으로 분석됐다.

시험을 통과하면 '매니저급'과 '탐색사 1급'의 자격이 주어진다.

탐색사 1급은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매니저급은 만 35세 이상으로 관련 저술경력이나 석·박사 논문이 있거나 경찰·검찰·군·국정원·경비업체 등 정보·수사·생활 안전 분야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여야 응시 가능하다. 탐색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이 지난 사람도 매니저급에 응시 가능하다.

대한탐정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시험 과목은 탐정학개론·팀장관계법개론·정보(증거)조사론·정보분석 및 보고론 등 총 4개 과목으로 각 과목당 25문항에 25분의 시험시간이 배정됐다. 시험은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다.

탐색사 1급은 4개 과목을 모두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매니저급은 2과목(탐정학개론·팀장관계법개론의)만 응시해 평균 6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탐정업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0조에 의해 금지됐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공인 탐정법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화가 추진돼 왔고, 현 정부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경찰청이 주관부처로 지정돼 이 사안을 검토·추진 중에 있다. 지난 2018년 선고된 탐정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결정 및 사법해석을 근거로 경찰청은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을 등록결정했다.

이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등록번호를 부여했고, 지난 2월 4일 국회가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 조항을 개정·공포함으로써 오는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탐정업이 가능해진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탐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인 탐정제도 합법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개인 사찰 문제, 경찰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등 공권력의 수사력 약화 문제 등이다.

대한탐정엽합회 측은 오히려 부작용보다는 긍정의 효과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기존 흥신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고 탐정업으로 합법화되거나 폐업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탐정과 경찰이 긴밀히 연대할 경우 경찰수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찰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김유성 대한탐정연합회 광주시회장은 "탐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면서 "이혼조장 및 이별조장 등 불법적인 윤리강령위반은 절대 사양하고 범죄행위로 간주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6월 1일 전두환 광주재판 전씨측 불출석 신청 허용

전두환(89)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재판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 출석해야 진행할 수 있다.

전씨 측은 사자명예훼손죄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인 점을 들어 불출석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일과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장 사직으로 새 재판장이 배정되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고, 새 재판장은 지난 4월 전씨의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인정신문을 다시 열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이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 방청석을 33석으로 줄이고 당일 오후 1시 10분부터 신분증 소지자에게 방청권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방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원장 건강식품 구입하고 국가 보조금 부당 수령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예산 빼먹기 여전

광주시교육청 올 감사 결과

유치원 예산으로 개인물품을 구입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비를 수령하는 등 지역 사립유치원의 일탈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사립유치원들에 대한 감사 결과, 유치원 예산으로 건강식품 등 원장 개인물품을 구입하는가 하면 징수한 원비를 거짓으로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들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 615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또 원장 개인 생식(2건) 81만원 어치와 음료(23건) 89만원 어치를 각각 구매하는 등 총 789만원 어치의 개인물품을 사들였다.

M유치원은 2016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물품 등(28건) 총 2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시 교육청은 C유치원과 M유치원 원장이 사적으로 구매한 물품구입비를 유치원 회계에 보전토록 조치했다.

또한 M유치원은 2016학년도와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급운영비 총 2070만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H 유치원도 2018학년도에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해 학급운영비 총 2400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 유치원들은 원비를 전년도보다 인하 또는 동결하거나 1.3% 내에서 인상하면 학급수 등을 고려해 유치원에 학급운영비를 지급하는 점을 악용, 실제 징수한 원비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한 뒤 학교 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부당하게 수령한 학교 운영비를 반납도록 했다.

S유치원은 2017년 2월과 2018년 1월 교사 5명의 급여를 최저 임금보다 총 43만 4000원 적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행정·시설관리·운전업무를 담당한 직원의 국민연금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일부 직원에 연말정산 결과으로 환급해야 할 100여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사립유치원의 부정회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K-에듀파인이 전면 도입된 만큼 보다 엄격한 감사를 거쳐 위법사항이 없애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야외활동 진드기 조심"…광주시 SFTS 주의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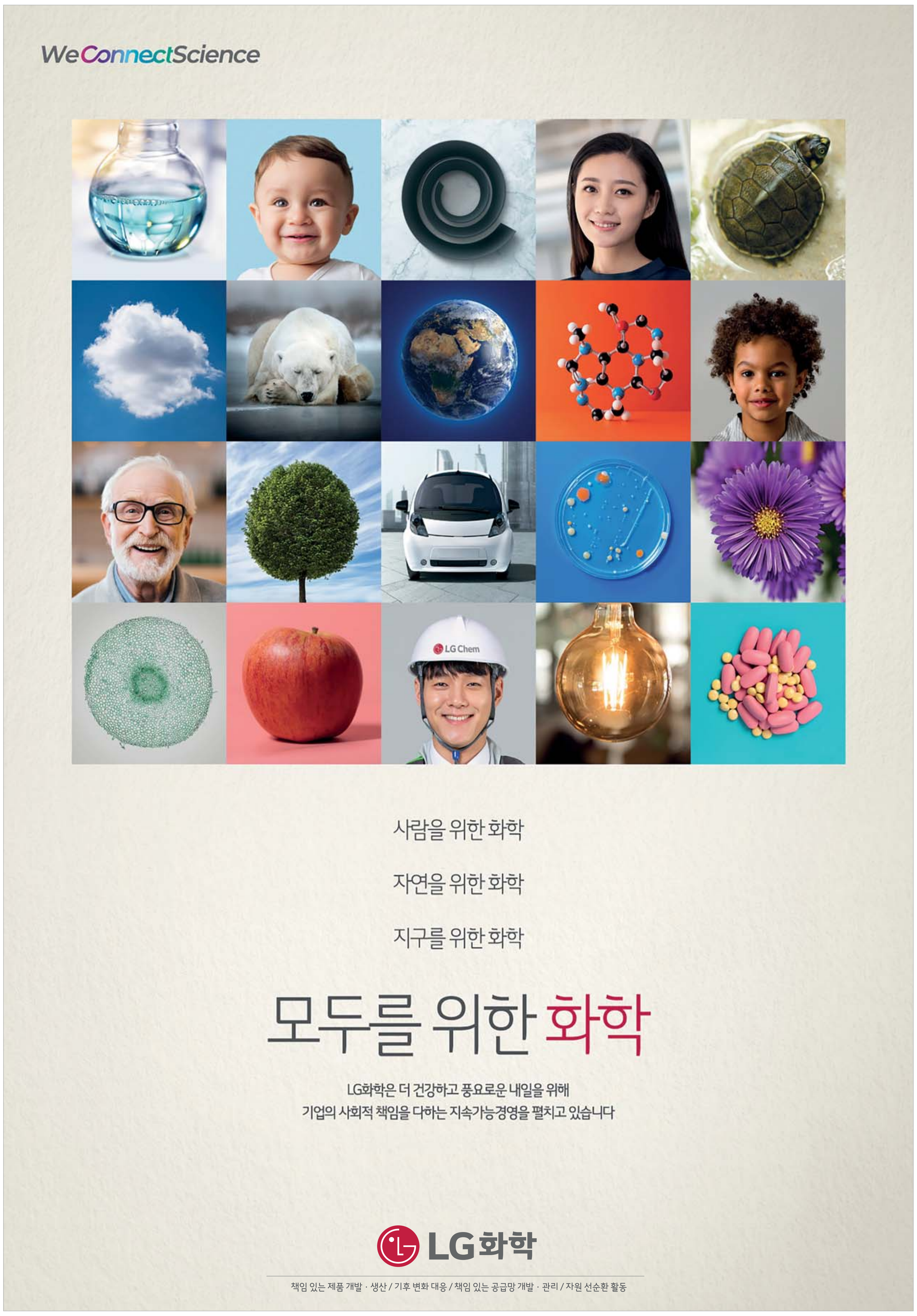
광주시는 최근 경북·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SFTS는 잠복기인 4~15일 후부터 38도 이상의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나고, 심한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이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다.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며,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 야외활동 시 주의해야 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중앙초에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 설립…내년 9월 개원

광주교육청이 학생들의 꿈과 끼, 예술적 감성을 키울 수 있는 창의예술과 예술메이커 체험전용 공간인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할 예정이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동구 예술의거리 내 광주중앙초교 운동장 한 켠에 73억 8000만원을 들여 연면적 2790㎡에 2층 규모의 광주학생문화예술지원센터를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학생들의 창의융합예술 역량 육성을 위한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3월 광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시 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에 기반하고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